

광주시, 노인성 뇌질환 연구 플랫폼 구축 나선다

호남권 유일 교육부 랩프 사업 공모 선정...국비 155억원 확보 조선대 주관 뇌·신경과학·기초의학 분야 중점테마연구소 운영

광주시가 호남권 최고의 디지털 기반 노인성 뇌질환 핵심연구 플랫폼 구축 나선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랩프(LAMP)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5억원을 포함 총 168억원을 투입해 호남권 최고의 디지털 기반 노인성질환 핵심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조선대학교가 주관해 뇌, 신

경과학, 기초의학 분야 연구소를 운영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인성 뇌질환 중심의 예방·치료 원천기술 개발과 조기 사입, 고용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랩프(LAMP)'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학과·전공의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신진 연구인력(랩프 전임교수, 포닥)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

된 기관은 총 8개 대학으로, 호남권에서는 조선대학교(뇌·신경과학·기초의학)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광주·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치매·뇌졸중·심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노령 인구 추적 코호트와 정밀 생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뇌질환에 대한 핵심 원천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생체·의료 데이터(Deep and Big) 데이터를 활용한 뇌신경계 질환 발병기전과 원인 규명 및 예방, 치료 예측 예측까지 가능한 뇌 아바

타를 구현하고, 기업과 연계한 디지털·바이오 뇌 아바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인력의 취·창업과 기업유치, 사업화에 따른 기업 매출 향상 등 다양한 성과 창출도 예상하고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교육부가 올해 처음 공모한 랩프사업에 조선대학교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뇌·신경과학·기초의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광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재예방 컨설팅 받으세요" 광주시 100인 미만 사업장 11월 10일까지 50곳 모집

광주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소규모 사업장 50곳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 업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수행기관)를 최종 선정했다. 컨설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확인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며, 사업장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결과는 개별통지할 예정이고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정당현수막 난립 차단 점검 나서

광주시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시행하며, 점검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동동별 4개까지 지정계제에 설치할 수 있다. 또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하면 안된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현수막, 도심가로수·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등을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도시탐색 구조훈련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19구조대원들이 지난 13일 119특수대응단에서 붕괴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행정지도 11월까지 신규등록 등 65곳 대상

광주시는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육성 등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행정지도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정지도는 지역 359개 업체 중 신규 등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및 운영현황 확인, 변경사항 의무신고 이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 내용 및 행정처분 기준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행정지도도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관련법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업체의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전은옥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법과 의무사항 안내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우즈벡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 협정 체결

"중앙아시아 첫 우호도시"

광주시와 실크로드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라자보프 에르킨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부시장은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두 도시 간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관광 및 마이스산업, 교육, 환경 분야 등에서 적극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간 협정 체결은 2014년 일본 요코하마, 중국 취안저우시와 우호협력 체결 이후 9년 만이다. 광주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4900여명 중 절반

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 중앙아시아 출신 등록 외국인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다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자매(우호)도시가 한 곳도 없다는 점 등이 새로운 교류 협력의 배경이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두 도시간 교류를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사마르칸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라자보프 에르킨존 사마르칸트시 부시장은 "광주시와 우호도시로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동포에 대한 환대도

감사하다"며 "많은 이들이 한국하면 자동차를 떠올린다. 자동차 도시이기도 한 광주와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중앙아시아와 처음으로 우호도시 협력을 맺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광주 고려인마을로 이어지는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광주와 사마르칸트는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마르칸트시는 인구 55만명의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이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대표적인 역사·관광도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광주시 오늘 시청 대회의실 유공자 시상·김경일 교수 특강

광주시는 16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 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우리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광주 정신건강 문화행사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광주 정신건강 문화행사'를 검색하거나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 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